

국내소식

동자부, 대형건물 전기절약 추진

동자부는 비생산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무역협회, 서울지방항공 관리공단, 63빌딩, 롯데호텔 등 1백개 대형건물에 대해 자체적인 전기소비절약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원단위 설정, 전기절약 일일점검표, 전력설비관리 자기진단요령을 작성토록 하는 등 전기이용합리화를 유도하는 「'92년도 대형건물 전기절약 추진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지난 4월 11일 동자부에 따르면 '89년 이후 건축경기의 호황 등에 영향받아 일반용 등 비생산성부문의 전력소비증가율이 생산부문인 산업용의 소비증가율을 현저히 상회함에 따라, 대형건물의 전기소비절약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91년도 중점관리대상건물 40개보다 범위를 확대 1백개 건물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전기소비절약을 수립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체홍보실시, 전력원단위설정 관리를 권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절약시설 및 설비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자료확보 및 보급을 통하여 시설 및 설비개체 등을 유도해나감은 물론 조명 냉난방설비, 동력설비, 수배전설비 등 부문별로 전기절약 추진사항을 종합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호텔, 백화점 등 유사건물별 절전가능사항을 발굴하여 건물별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전기절약정보를 동종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여타 건물에서도 절전수범사례를 창조하여 전기소비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연면적 1천평 이상 건물 빙축열기 채택 의무화

동자부는 연면적 1천평 이상 건축물에는 반드시 냉방설비의 40%를 빙축열기기로 채택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토록 건설부

에 지난 4월 15일 정식 요청했다.

동자부의 이번 조치는 건설부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 하계 전력수요 피크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냉방부하를 축냉식에 의한 심야전력기기 사용으로 대체, 냉방부하의 시간대 이동에 따른 분산을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빙축열기기를 채택할 경우 설치자는 금융·세계·한전지원금과 저렴한 심야전력사용으로 냉방비용 50% 절감이 가능하고, 2천1년까지 전력피크 36만kW 감소,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비 2천8백14억원 절감,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운전비 연간 3백79억원 절감이 가능해 가계와 국가 모두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전기냉방의 대체기기인 가스냉방과 비교할 때도 가스냉방식이 전력피크시간대 냉각탑·냉각펌프·냉온수기·부속펌프 등의 가동을 위해 빙축열방식보다 30% 이상의 전기사용량 증가가 불가피하고, 가동시에도 빙축열기보다 가스냉방기기가 예열시간이 1~2시간 더 필요해 적절한 하계전력 피크시간대의 첨두봉우리인 2배간kW에 달하는 냉방부하를 억제키 위해서는 빙축열기기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동자부가 건설부에 요청한 구체적 내용은 건설부 주관으로 지난 3월 24일 입법예고, 6월 1일 확정을 목표로 의견수렴중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중 난방설비의 중앙집중 난방만을 거론한 제90조 규정에 제②항을 신설, 「연면적의 합계가 3천3백㎡ 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의 냉방설비는 소요 냉방설비 능력의 40%를 축냉식 전기방식에 의한 중앙집중 냉방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빙축열기기로 통칭되는 축냉식전기방식은 심야전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생산하고 이를 냉방에 사용함으로써 낮에 급격히 증가하는 냉방전력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형건물 전기소비 실태 점검

동자부는 올해중 전기절약을 유도키 위해 집중관

리대상으로 선정된 연간 5백kW 이상 소비하는 1백 개 대형건물중 한국무역협회 등 20개 업체를 1차 대상으로 해 14일부터 전기사용진단에 나섰다.

이번 진단에서는 대상 건물의 단열상태·변압기·조명·동력설비현황 등을 점검, 전기손실이나 낭비요인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를 권고하고 절전우수건물의 경우 사례를 널리 보급할 방침이다.

이번 진단대상은 '92년의 관리대상건물 1백개 가운데 무역협회 등 업무용 빌딩 5개, 농협 등 금융기관 5개, 롯데백화점 등 백화점 5개, 워커히 등 호텔 5개, 모두 20개 건물이다.

전기공사협회, 창립 제32주년 기념식 가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김영신)는 지난 4월 3일 상호 협회 강당에서 창립 제32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결속을 다졌다.

서울, 인천, 경기일원의 전기공사협회 임원·지부장·위원장 및 직원을 비롯, 대내외 관계자 등 1백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전기공사업 영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가 증정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신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전기공사업의 권익과 보호를 지켜야 한다는 응지로 탄생한 협회는 고난의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제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기공사업계에 밝은 희망을 던져주었다」고 말했다.

해외소식

일본, 2001년 전력수요 1억4천만여 kW 예상

일본의 동경전력을 비롯한 9개 전력사들은 올해 최대수요전력과 오는 2001년까지의 예비율 전망치를 발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9개 전력사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여름의 최대 수요전력은 지난해보다 6백10만kW가 늘어난 1억4천7백60만kW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력사들은 1억6천33만kW의 공급설비를 확보 8.6% 공급예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전력사들은 향후 전력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2.4%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오는 2001년의 최대수요전력은 1억8천80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력사들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발전소 증설에 주력하고 있다.

코리츠사, 모델 3001B 절연테스터 개발 시판

코리츠사는 시험범위가 광범위하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모델 3001B」 절연 테스터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은 5백과 1천직류볼트에서 2/20/2백메가옴의 자동절연 테스트 범위를 가진다.

또한 이 테스터기는 20/2백옴 범위에서 낮은 저항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험전압상태하에서는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지시해 준다.

신와덴키, CAD/CAD시스템 개발

일본의 산와덴키(주)는 EWS 전기설계지원 CAD/CAD시스템 「UniDraf 32EX」를 개발했다.

주요 특징은 고응답기능과 저가격의 실현, EWS 표준 UNIX-SYSTEM, V를 OS에 안정넷트를 기본으로 한 CAD시스템의 구축기능, 고해상도 21인치 CBT로 선명해상을 실현, 설계변경을 협력하여 지원하는 편집기능과 시퀀스 쌍방향에 연결, 전기심별 자동배치기능과 부품표 자동작성, 2개 국어 등록으로 전기용어사전에서 한자 명령 입력시간을 대폭 단축, 뛰어난 조작성, 자동 Thoughting 기능 등이다.